



논 농 사

◇ 물관리

□ 물걸러대기

○이삭이 팬후에도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. 벼가 익는 기간은 보통 40~50일이지만 쌀알의 발육과정으로 보아 이삭팬후 30~35일경까지 벼잎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벼알로 옮겨지기 때문에 이때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.

○또한 벼뿌리에서는 산소의 요구

도가 큰 때로서 이때에 산소가 부족되면 벼 뿌리가 노쇠되어 여물이 나 빠지므로 물과 산소 2가지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물걸러대기를 실시해야 한다.

○물걸러대기 요령은 3~4cm정도 대어준 물이 완전히 잦아들고 난 후 1~2일간 방치하였다가 다시 새물을 대어주는 작업을 반복하는데 이 때 모래논은 논에 금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.

○찬물을 대어주어야하는 논은 찬물이 직접 논에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튜브를 이용하거나 논주위에 찬물 돌림갈개를 설치하고 물을 돌려서 대어 물 온도를 높여준다.

□ 완전물떼기

○완전물떼는 시기는 벼알여물을 좋게 하기 위하여 이삭췌 후 30~35일에 하는것이 좋으며 이보다 늦게 물을 떼면 벼베기 작업이나 벼뿔그루작물 파종에 지장을 주게된다.

◇ 채종답 관리

○시범단지나 각 농가에서 벼씨를 받아야 할 채종답은 그 품종의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이삭 췌때부터 젖익음 때 사이에 탄 포기나 잡이삭을 철저히 뽑아내서 순도 높은 종자를 받도록 한다.

○채종논 뿐만 아니라 모든 논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피는 한 포기도 남기지 않고 뽑아버린다.

◇ 병해충방제

□ 만생종이삭도열병

○만생종인 아끼바레, 낙동벼, 금강벼 및 중남부지방의 2모작 지대의 출수기가 8월 20일 전후가 되지만 지대별 품종별 모내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기논을 잘 관찰하여 이삭이 한포장에 2~3개 나올 때 꼭 1차 방제하고 1차 방제 후 7일에 2차 방제한다.

○잎도열이 심하게 발생하였던 논이나 밀양 23호 등 도열병에 약한

품종에 대해서는 가지, 벼알도열병을 방제하기 위하여 다시한번 약을 뿌려 완전방제가 되도록 한다.

□ 벼멸구·흰등멸구

○벼에 피해를 주는 해충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량감수를 가져오는 해충은 벼멸구·흰등멸구이다. 이들 해충은 직접벼대에 붙어 즙액을 빨아먹어 피해를 주므로 많이 발상되었을 때는 벼대와 잎이 마르고 이삭이 갈색으로 변하여 여물지 못하여 쪽정이가 된다.

○멸구는 주로 벼포기의 밑부분에 붙어 벼의 즙액을 빨아 먹으므로 벼포기를 헤쳐보고 방제작업을 철저히 한다.

발 농 사

◇ 맥류과종준비

□ 종자갱신

○신품종 종자는 종자공급소를 통하여 보급되는 정부보종종자나 지난해 시범단지산으로 구매하지 않고 농가에 보유하고 있는것을 자율교환하여 사용한다.

□ 종자소독

○최근 감부기병이 많이 없어진

◇ 9월의 농가메모 ◇

것은 종자소독의 효과로서 종자소독은 감부기병외에도 출무늬병 등 다른 병에도 효과가 있으므로 종자소독은 반드시 실시한다.

○종자에 물기가 있거나 일시에 많은 량을 소독하면 약이 고루 묻지 않으니 건조한 종자를 1회에 16kg정도에 약 1봉지씩을 넣어 종자에 골고루 분의한다.

□ 사전재배기술숙지

○안전다수확재배를 위하여 재배품종의 특성과 적기파종의 중요성, 안전월동을 위한 재배기술내용, 토양개량 및 시비요령 등 재배기술 전반에 대하여 사전에 잘 알아둔다.

◇ 콩수확

○수확적기는 콩알이 누렇게 변하여 떨어지고 콩꼬투리와 콩알이 단단해지며 콩알과 콩꼬투리가 분리되어 흔들면 소리가 나는 시기가 적기로 대체로 충북부지방은 9월하순부터 10월상순이 되고 남부지방은 10월상순이다.

○탈곡은 콩알의 수분함량이 18% 이하가 되도록 말려서하고 탈곡기 회전속도를 1분에 450회전이 넘지 않도록 한다.

배 추

◇ 김장무우·배추정식

○무우는 남부지방에서는 9월상순까지 파종을 하고 파종적기를 놓쳤을 때는 조생종을 택하여 파종한다.

○육묘재배한 배추는 본엽이 5~6매 되던 정식한다.

○무우·배추의 웃거름은 파종 또는 정식후 15~20일 간격으로 3회 가량 분시한다.

○무우·배추는 결구 및 뿌리비대에 다량의 수분을 요구하므로 가뭄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수하되 물이 오래도록 담겨있지 않도록 이랑에만 대준다.

○태풍 또는 소나기 후에는 잎에 상처를 받게되니 잎의 오물을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살균제를 살포해 주며 배수에 힘쓴다.

○바이러스병, 연부병, 흑반병, 노균병, 백반병, 진딧물류, 배추흰나비 등 각종 병해충에 대하여 예찰을 철저히 하여 방제에 힘쓴다.

◇ 고냉지 무우·배추추대

○7월 중순 이후 파종한 무우는

생육이 진전됨에 따라 추대할 우려가 많다.

○추대대책으로는 추대되고 있는 무우는 일찍 수확하여 출하하고 현재 추대가 되지 않는 포장에 앞으로 추대할 위험성이 크므로 주의깊게 관찰하여 추대초기에 판매할 것이며 생육이 불량한 포장은 요소, 비왕 등을 엽면시비한다.

◇ 여름배추 망사재배

○수확예정 15일전(9월 중순)에는 망사를 벗겨주어 결구를 촉진시킨다. 생육불량시는 요소, 비왕 등을 엽면살포한다.

◇ 고추밭 관리

○서리오기 10~14일전에 에세폰액제를 사용, 붉은고추의 수량을 높인다.

○수확기 연장재배 고추는 9월중~하순에 비닐하우스를 씌우고 요소를 엽면 시비한다.

과 수

◇ 후기낙과 방지

○생리적 낙과의 원인이 양분공급

불균형에 의한 것으로 뿌리로부터 흡수되는 양분(질소)과 잎에서 만들어지는 동화양분과의 사이에 과부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.

○수세가 강한것은 질소를 너무 많이주면 영양생장이 왕성해지고 과실의 낙과가 많아지고 반대로 수세가 쇠약해진 나무나 노목의 경우는 질소를 적당히 웃거름을 하여 동화작용이 잘 되도록 도장지를 제거해주고 비배관리를 잘 해주어 수세를 튼튼히 유지해준다.

○토양습도가 극히 건조하지 않도록 물을 대주고 가뭃후에는 급격히 많은 물을 대주지 말고 서서히 토양습도를 높여 주도록하는 것이 후기 낙과를 줄인다.

◇ 과실의 착색촉진

○봉지벗기기는 홍색계 품종은 수확 15~20일 전에 실시하고 적색품종은 수확 10~15일 전에 실시한다. 일시에 완전히 벗기면 일소피해를 받으므로 봉지밑을 약간 벗긴후 2~3일 후에 실시한다.

○조기출하를 목적으로 할 경우는 착색제를 사용하는데, 수확예정 20~30일 전에 에세폰액제를 처리한다.